

단결

투쟁속보

투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909호 / 발행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담당 교육선전실 / 전화 (02) 6277-2187 / 팩스 (02) 6277-2190

공공노련-공공연맹, 조직 역량 총동원해 투쟁할 것 양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하고 투쟁결의 다져



■ 공공노련-공공연맹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금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60여명이 모여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를 높였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이 바로 2단계 정상화 대책”이라며 “강고한 투쟁 대오로 2단계 정상화를 저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를 분쇄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결사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양 연맹은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투본 그리고 각 연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 설명회와 임단협 집중교섭(~6월 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정에 맞춰 조합원 찬반투표(6월 15일~30일)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노련,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투쟁 결의>

- 근로기준법마저 무시하고 일개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부문과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입맛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허구성과 반노동자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노총과 양 연맹의 투쟁 지침에 따라 7월 10일 이후 전 조직이 동시에 일괄조정에 돌입한다!
-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현 정세에서 가장 시급하며 위력적인 대중투쟁임을 각인,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6월 30일까지 전 조합원 100% 투표를 관철할 것!
- 당면한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임금피크제’, 그리고 이를 강행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완화’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양 연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결사투쟁할 것!



■ 한국노총 긴급투쟁지침 2호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구체화 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전국 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시행하기로 하고 긴급투쟁지침을 전 조직에 하달했다.

<전국 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시행기간 : 2015. 6. 15(월). 14시 (시간은 탄력적)
- *서울지역은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 참석대상 : 각급단위 대표자 및 상근간부
- 장 소 : 전국 15개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앞
- 진행주체 : 한국노총 해당 지역본부(회원조합 적극 결합)
- *기타 진행 및 참여방법은 회원조합 지역의 노총 지역본부에 문의

■ 전국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통해 공공 공투본(공동투쟁본부)으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향후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대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

- 일 시 : 2015. 6. 24(수). 11:30~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석대상 : 중앙정부 공공기관, 공공부문 상급단체 대표자 및 간부, 무노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5. 6. 24(수). 09:30~11: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주제 :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개최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 일 시 : 2015. 7. 4(토). 14:00
- 장 소 : 서울 대학로(혜화동)
- 주 최 :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참석대상 :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단결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 조직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한국노총 총파업찬반투표는 나의 일자리, 나의 근로조건을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의 목적은 쉬운해고 저지, 임금삭감저지, 성과연봉제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등 우리의 근로조건 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근로조건 개악시도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수십년간 쌓아온 현장 노사관계의 신뢰와 안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서툰 발상입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시작된 '노동자죽이기 음모'는 전 업종, 전 사업장으로 일거에 확산되어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시적

해고위협과 근로조건 개악음모를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한국노총 그 자체입니다. 한국노총의 모든 힘은 현장과 조합원동지들에게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당당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시적 해고위협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총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우리의 생존권, 아니 나의 생존권을 지켜 냅시다.

정부는 벌써부터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 등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정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의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의 음모를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임금 피크제 다음에는 상시해고, 저성과자 퇴출 등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반노동정책이 줄줄이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노총 전체조직의 총파업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은 현장의 분노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위원장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투쟁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와 총연맹이 짊어지고 나갈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해고위협을 분쇄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낼 힘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표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 중 각자의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십시오. 단위노조위원장 동지들은 조합원교육을 실시하고 총파업 투표공고를 해주십시오. 노조간부들은 선전물을 배포하고 조합원동지들의 투표를 독려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한국노총 조합원 동지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슬한 역경을 투쟁으로 돌파하며 한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총파업찬반투표 실시! 압도적 가결! 노동의 희망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동지여러분,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투쟁!